

2011. 11. 21 제275호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2011. 11. 21 제275호

산업·경제

1. 우수 관광상품의 브랜드화 추진 (북경)

건강·복지

2. 시민의 식생활과 학교급식 개선 추진 (뉴욕)
3. ‘고령자 생활실태’ 조사결과 발표 (도쿄)
4. 2012년까지 모든 가정에 ‘홈닥터 서비스’ 무료 제공 추진 (북경)
(토막기사) 장기 무단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뉴욕)
(토막기사) 한부모·미혼부모 대상으로 취업 촉진 프로그램 시행 (독일)
(토막기사) ‘청소년 스트레스 해소 박람회’ 개최 (독일 함부르크市)
(토막기사) 공유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노인 관련 시설 정비
· 운영 (도쿄)

행정·재정

- (토막기사) 도정 모니터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도쿄)

방재·안전

(토막기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도시계획 방법 제안 (캐나다 캘거리市)

도시환경

5. ‘나눔정원’ 조성사업 추진 (파리)

(토막기사) 외국인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쓰레기통에 ‘픽토그램’ 부착
(일본 교토市)

도시교통

(토막기사) 도로환경에 맞는 새로운 맞춤형 친환경버스 도입 (런던)

도시계획·주택

6. 도심의 공공용지를 활용해 저렴한 서민주택 건설 (런던)

(토막기사)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는 도시계획 안내서 발간 (베를린)

산 업 · 경 제

1. 우수 관광상품의 브랜드화 추진 (북경)

○ 북경市는 공모를 통해 북경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을 선정해 ‘북경선물’ (北京礼物)이라는 브랜드를 부여하고 있음. 북경선물은 북경에서 주로 생산되거나 북경 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상품으로, 관광기념품에서 일상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현재 북경선물은 시내 관광지, 공항 등에서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음.

- 市 관광발전위원회는 최근 제8회 북경선물 공모전을 개최함. 이번 공모전에 참가한 작품은 2200여 건으로 관광기념품, 공예미술품, 서화제품, 공산품 등 4종류로 분류됨. 심사를 거쳐 특별상, 금상, 은상, 동상, 가장 아름다운 포장디자인상, 가장 창의성 있는 작품상 등을 수여하며 이들 우수작품은 ‘북경선물’이란 브랜드로 판매됨.

· 市는 관광객이 북경을 쉽게 떠올리게 하고 중국 문화를 폭넓게 전파할 수 있는 서화(書畫) 제품의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함. 市는 수준 높은 관광상품 판매가 중국 문화를 전파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함.

(北京市 旅游委网站, 2011. 11. 8)

건 강 · 복 지

2. 시민의 식생활과 학교급식 개선 추진 (뉴욕)

- 뉴욕市는 10월 24일을 ‘음식의 날’로 지정하고 잘 조리된 음식을 섭취하는 지침을 알려주는 홈페이지 ‘NYCFOOD’를 개설함. 이번 웹사이트 개설로 시민이 보다 건강한 밥상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리방법 및 식재료 구입방법, 영양 관련 강좌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게 됨.
- 市는 ‘세계의 음식수도’라고 자부할 만큼 다양한 국가의 음식을 접할 수 있음. 이에 반해 시민의 일상식사는 인스턴트 혹은 고지방·고염도인 경우가 대부분임. 市는 이러한 시민의 식습관을 개선하고자 식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2007년 식품정책 코디네이터 사무국을 설립해 시민이 자주 접하는 식품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음식문화 개선에 힘쓰고 있음.
 - 이 같은 도시정부 차원의 노력은 건강한 식생활을 권장하고, 안전한 식재료 및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식생활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市 건강국은 2010년 시민의 식생활 습관에 대하여 조사한 바 있음. 조사결과에 따르면 뉴욕에 사는 성인의 50%가 과체중 혹은 비만, 어린이는 5명 중 1명이 비만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저소득층 커뮤니티에서 식습관 관련 질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짐.
- 아울러 市 교육국과 학교급식 사무국은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먹거리를 이용해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홈페이지 ‘NYCFOOD’에 학교급식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도 만들어 무

로 혹은 저렴하게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학교에서의 올바른 식습관 교육과 지속 가능한 식생활 관련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도록 함.

- 학교정원 조성: 학교정원 조성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먹거리에 관한 이해와 식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으로, 많은 학교가 이를 시행 중이거나 할 계획에 있으며 민간부문에서 이를 후원하기도 함. 공립학교의 경우 소규모 지원금이나 자원봉사,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학교 카페 운영: ‘학교정원 조성’ 프로그램과 연계해 정원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학교 카페에서 활용하는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음. 뉴욕의 유명 요리사가 운영하는 민간재단 ‘Yum-O!’와 市 공립관리국에서 이를 후원함.
- 학교 아동건강 프로그램 시행: 공립학교 학생이 비만에 걸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市에서 직접 시행함.
- 그밖에도 방과 후 요리실습, 영양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거나 시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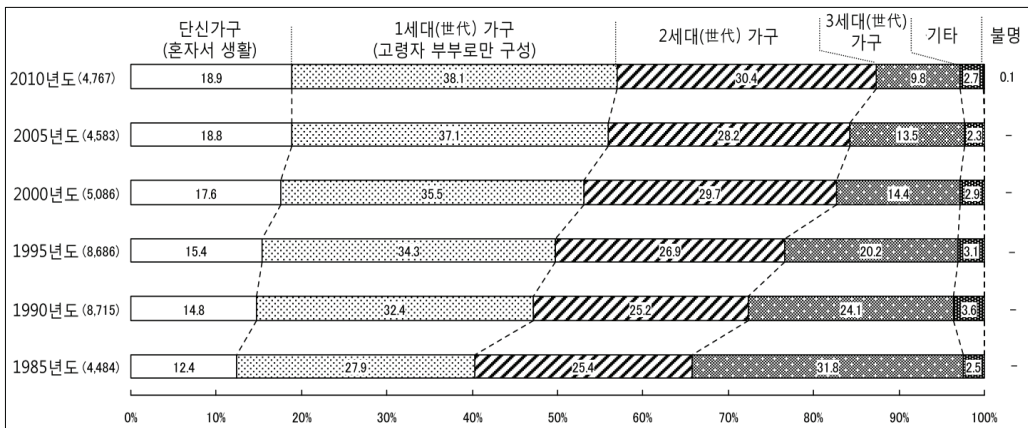
(www.nyc.gov/html/nycfood/html/home/home.shtml)

3. ‘고령자 생활실태’ 조사결과 발표 (도쿄)

- 도쿄都는 향후 고령자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지난 2010년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한 달간 ‘고령자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했는데, 최근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함. 都는 1980년도부터 5년마다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음.

- 이번 조사는 65세 이상의 재택 고령자 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를 실시해 4767명의 의견을 받음(회수율 79.5%). 잠정 결과치가 2011년 4월에 발표된 바 있으며, 10월 20일에 최종결과가 발표됨.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먼저 가구구성을 살펴보면, 고령자만으로 구성된 가구 비율이 조사가 시작된 1980년도부터 계속 증가해 2010년에는 절반을 넘어섰으며(55.3%), 고령자 혼자 생활하는 가구(독거노인)도 5가구당 1가구(18.9%)에 이름. 이 중 75세 이상 고령자가 혼자 생활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남자 10.4%, 여자 28.3%로 여자가 17.9%p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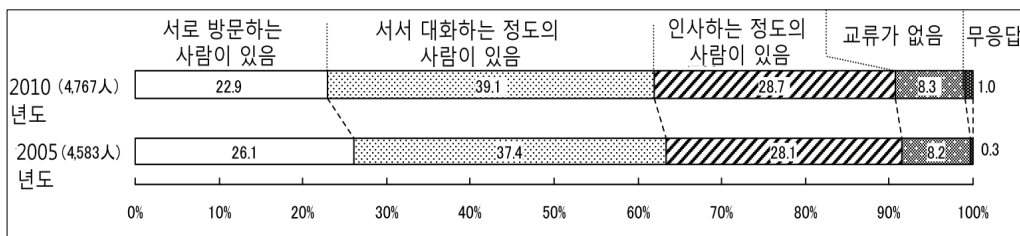


【고령자가구의 구성인원 변화 추이】

- 거주하고 싶은 장소를 살펴보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계속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72.4%인 데 반해 ‘고령자 전용 주택 및 시설을 이용하고 싶다’고 답한 사람은 11.6%에 불과함. 고령자 전용 주택 이용 희망자 중에서 독거노인은 2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웃과의 교류정도를 살펴보면, ‘서서 이야기하는 정도의 사람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2000년 조사 때보다 1.7%p 높은 39.1%로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서로 방문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2000년도보다 3.2%p 감소한 22.9%를 기록함. ‘이웃과의 교류가 없다’고 답한 경우도 2000년보다 0.1%p 증가한 8.3%에 달함.

- 필요한 고령자시설에 대한 응답은, 연금 및 의료 등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53.0%), 재택서비스(50.3%),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50.2%) 순으로 나타남. 2000년도 조사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한 응답은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으로 6.3%p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고령자를 위한 주택 확충(32.0%)이 6.0%p 증가함.



【고령자의 이웃 간 교류정도】

(www.metro.tokyo.jp/INET/CHOUSA/2011/10/60lak100.htm)

(www.metro.tokyo.jp/INET/CHOUSA/2011/04/DATA/60l4s301.pdf)

(www.metro.tokyo.jp/INET/CHOUSA/2011/04/DATA/60l4s302.pdf)

4. 2012년까지 모든 가정에 ‘홈닥터 서비스’ 무료 제공 추진 (북경)

- 북경市 위생국은 2012년까지 모든 가정에 ‘홈닥터 서비스’(家庭醫生式服務)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홈닥터 서비스는 북경에서 생활하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모든 진료과목의 의사·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진이 24시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홈닥터 서비스는 매년 1회 건강검진 실시, 맞춤형 건강계획서 작성 등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도와줌. 노인·여성·어린이·만성질환자에게는 24시간 전화 상담 서비스와 건강지도 서비스를, 독거노인·장애인가정에는 방문진료와 방문지도 서비스를 제공함.
 - 무료 건강검진 및 개인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네트워크도 구축함. 지역과 대형병원 간의 양방향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환자 전용 정보 채널을 만들 예정임. 지역의 홈닥터 서비스를 통해서 질병을 정확하게 진료하고, 중병일 경우 대형병원에 예약해 진료를 받도록 함.
- 홈닥터 서비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의료서비스단체와 서비스를 받는 가정 간의 계약 체결을 통해 제공됨. 市는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단체당 600가구를 초과해 계약할 수 없도록 제한함. 市는 홈닥터 서비스를 통해 공공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北京娱乐信报, 2011. 10. 10)

(中广网, 2011. 11. 13)

장기 무단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뉴욕)

- 뉴욕市는 장기 무단결석 학생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프로그램 참가학생을 2배 이상 늘리기로 결정함. 市에 따르면 2011년 11월 현재 관내 초중고생 중 장기 결석학생은 3만 90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1450 명에게 개인 멘토를 연결시켜준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얻음.
 - 전체적으로는 평균 출석일수가 16일 늘어났으며, 1450명 중 450여 명은 결석일수가 현저하게 줄어듦. 이에 市는 2012년부터 프로그램 참가학생은 4000명으로, 참가학교는 2배 늘리기로 하고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전문가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음.

- 市는 학기 중에 2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을 장기결석자로 간주하고, 38일 이상 결석한 학생을 장기 무단결석자로 분류함. 市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확대로 공공교육의 질과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www.mentoring.org/newyork/)

한부모·미혼부모 대상으로 취업 촉진 프로그램 시행 (독일)

- 독일 연방 노동사회부는 2009년부터 3년간 총 77개 프로젝트로 구성된 ‘한부모·미혼부모를 위한 좋은 직장’이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은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거나 혼인하지 않은 채 아이를 기르는 한부모나 미혼부모의 취업을 촉진하는 데 있음. 이를 위해 유럽연합 사회기금과 독일연방 보조금에서 약 6000만 유로(약 920억 원)를 지원받음.
- 노동사회부는 프로그램 참가자와 함께 새로운 직업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용적인 직업분야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함. 탄력근무제와 아이를 돌보고 교육하는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룸.
- 독일 사회에서는 한부모와 미혼부모의 궁핍한 상황이 사회통합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됨.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중 한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증가해 현재 1/5에 이름. 한부모 가정의 약 41%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됨. 한부모나 미혼부모는 독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보다 취업률은 높지만 가난을 극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더 많음.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호기관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기관, 여성상담소, 시민사회단체, 교육기관 등과 협력해 이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음.

(www.alleinerziehende-bmas.de/index.php/gute-arbeit-fuer-alleinerziehende.html)

(www.gute-arbeit-alleinerziehende.de)

‘청소년 스트레스 해소 박람회’ 개최 (독일 함부르크市)

- 독일 함부르크市는 2011년 10월 26일 슈타이니케 슈트라쎄 청소년 문화센터와 함께 ‘흥미진진한 휴식’이라는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박람회 형식으로 개최함. 이 행사는 스트레스에 과도하게 노출된 청소년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테크닉을 개발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임.
- 14~18세 청소년의 20% 이상이 매일 흡연을 하며, 폭음을 하거나 환각제를 흡입하는 학생도 증가하는 추세임.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컴퓨터와 게임에 몰입하는 청소년도 급속하게 늘고 있음. 이에 건강에 해로운 이러한 스트레스 해소방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함.
- 이러한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자신감과 즐거움을 찾고 긍정적인 마인드와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테크닉의 개발임. 이번 행사에서는 머리를 비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부스 외에도 16가지 스트레스 해소법을 소개하고 체험해보도록 하는 공간이 마련되었음. 행사가 열린 문화센터 마당에는 활쏘기장, 맨발로 걸으면서 균형 잡기 체험장 등이 설치되었으며 센터 내부에는 요가, 기공, 명상, 꿈 여행, 시아추 마사지, 시청각 여행, 그림 그리기, 점진적 근육 이완, 태극권, 소울푸드(Soul Food) 조리, 음악 감상 등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됨.

(www.hamburg.de/harburg/3118904/2011-10-20-harburg-suchtpraevention-entspannung.html)

공유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노인 관련 시설 정비·운영 (도쿄)

- 도쿄都는 용지 확보가 곤란한 도심지역에 노인 관련 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都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노인 관련 시설을 정비·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해 都는 세타가야區 일대 3543㎡의 도유지에 특수 노인요양원(정원 100명), 노인

단기 입소시설(정원 20명), 도시형 저가 요양원(정원 10인) 등의 시설을 운영할 사업자를 2011년 10월 말에 선정함.

- 사업자는 도유지 이용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조직운영의 적합성, 재정운영의 안정성, 사업운영의 확실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따져 선정함. 임대료는 50%를 감면해주며, 임대기간은 최장 50년임.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10/20lav100.htm)

행 정 · 재 정

도정 모니터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도쿄)

- 도쿄都是 500명으로 구성된 도정(都政) 모니터를 대상으로 도내 거주방향, 도정 만족도, 향후 조치가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해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해 조사결과를 도정 운영에 활용하고 있음. 2011년도에 실시한 설문조사 주제는 ‘도와 도정에 대한 관심’으로 9월 9일~15일 도정 모니터요원이 설문조사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총 500명 중 472명이 응답해 회수율이 94.4%임.
- ‘도쿄에 계속해서 살고 싶다’고 답한 사람은 89%(2010년 92%)를 차지함. ‘도쿄가 매력 있는 도시’라고 답한 사람은 93%(2010년 94%)로 나타났는데 응답자는 그 이유로 ‘교통망 확충’(67%)을 가장 많이 꼽았음. ‘도정이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답한 사람은 58%(2010년 56%)이고, ‘도정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은 57%(2010년 54%)로 나타남. 향후 都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방재대책이 63%로 1위(2010년 4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대책(37%), 치안대책(37%), 환경대책(25%), 행·재정 개선(25%) 순으로 나타남.

(www.metro.tokyo.jp/INET/CHOUSA/2011/10/60lar100.htm)

방 재 · 안 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도시계획 방법 제안 (캐나다 캘거리市)

- 캐나다 범죄학자인 Nikki Filipuzzi는 도시계획으로 지역 내 범죄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그는 지역주민들에 의해 형성된 주거공간 환경에 따라 범죄를 부추길 수도 있고 반대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주장함.
- 그는 캘거리의 가장 오래된 타운으로 마약 거래가 성행했던 잉글우드 (Inglewood) 지역을 예로 들어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상가가 증가하고 상업지역이 발달함에 따라 지역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되어 범죄발생률이 2005년 이후 50% 이상 감소되었다고 밝힘. 이에 반해 주거지역인 Valley Ridge에서는 2005년 26건에 불과하던 주거침입 신고건수가 69건으로 증가하였는데, 그 원인이 많은 주민들이 다운타운으로 출근해 낮 시간대 상주인구가 감소한 데 있다고 설명함. 이와는 달리 퇴직자나 젊은 부부세대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형성된 지역의 경우 주거침입과 같은 범죄가 감소했다고 밝힘.
- 그가 제시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도시계획 요소를 살펴보면, ① 지역 내에 잘 가꾼 나무는 범죄를 줄일 수 있지만 나무를 과도하게 가꾸어 숲을 조성하면 범죄행위를 숨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범죄를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고, ② 주거공간을 열려 있는 형태로 설계할수록 범죄예방 효과가 큼.

(www.vancouver.sun.com/business/Better+urban+planning+reduce+crime/5633900/story.html)

도 시 환 경

5. ‘나눔정원’ 조성사업 추진 (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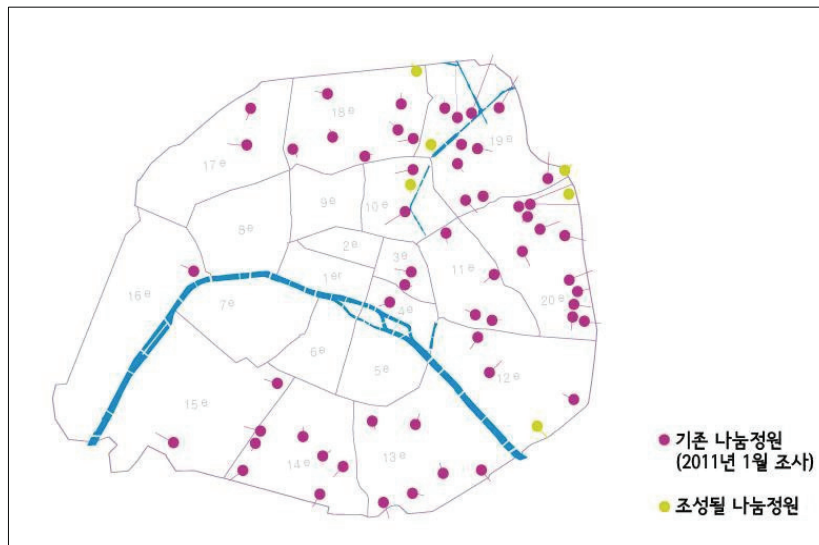
- 파리는 나눔정원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나눔정원은 교육, 사회통합,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목적으로 정원 가꾸기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리 정원임. 서로 다른 문화 간, 세대 간의 만남과 교류를 촉진하고 학교, 양로시설, 병원 등 서로 다른 삶의 공간을 이어주는 데 기여함. 또한 녹지를 확충하고 생물종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
- 나눔정원은 사유지나 공터에 조성되며, 시와 주민들이 조직한 협회 간의 계약을 통해 협회에 1년 동안 임대됨. 계약 갱신은 5~6년까지 가능함. 정원은 일반적으로 상설로 운영되지만, 일부는 체육관 등 시 시설이 지어지기 전 그 부지에 임시로 조성될 수도 있음.
 - 지주나 위임을 받은 기관은 부지를 정리하고, 시는 정원 조성에 필요한 흙을 제공하고 알림판을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물을 끌어오고 울타리를 치기도 함.
- 시는 기존 나눔정원과 신규 나눔정원 조성 프로젝트를 장려·지원하기 위해 ‘녹색 손’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들 간의 조화를 도모함. 이 프로그램은 나눔정원 참가자에게 매주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정원뿐 아니라 참여자 간의 교류 역시 주요하게 고려함. 나눔정원 조성방법은 다음과 같음.
 - ① 나눔정원을 만들고 싶은 주민들이 모여 협회를 구성함. ② 협회가 구성되면 시 녹지환경국의 ‘녹색 손’ 팀에서 필요한 서류

작성을 도와줌. ③ ‘녹색 손’ 현장정신(환경 보호, 주민과 대중에게 주기적으로 정원 개방)에 입각한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협회와 區, 市 관련 부서가 협의를 한 후 市가 비용, 프로젝트 내용 및 실현 가능성을 따져 프로젝트를 최종 승인함. ④ ‘녹색 손’ 팀은 정원 가꾸기 활동이 잘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조언함. ⑤ 區와 ‘녹색 손’ 팀은 계약내용이 잘 지켜지는지를 살피고, 협회는 녹색 손 현장정신에 입각해 나눔정원을 가꿈. ⑥ ‘녹색 손’ 로고를 획득한 정원은 프로젝트 진행방법론이나 정원을 돌보는데 필요한 기술 및 지식, 정원 가꾸기 노하우 등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협회가 지켜야 할 녹색 손 현장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개방성: 회원 중 1명이 정원에 있을 때 공공에게 개방함. 만일 나눔정원이 공공녹지공간에 있으면 상시 개방함. 정원을 가꾸는 시즌에는 적어도 한 번 이상 대중을 상대로 한 이벤트를 개최함. 협회 이름과 연락처, 정원에 입장하는 방법, 협회 활동내용과 모임 날짜도 대중에게 공지해야 하고, 정원에 녹색 손 로고를 붙여야 함.
 - 환경보호: 쓰레기로 퇴비를 만들거나 빗물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살충제나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토양과 기후에 맞는 수종(樹種)을 심음.
 - 운영방법: 정원 운영수칙을 협회 공동으로 만들어 공지하고, 정원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해야 함. 예를 들어 주차장이나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없음.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활동해야 하며 해마다 연간 리포트를 작성해야 함.



【파리 14區에 있는 아끄뒱 나눔정원】



【파리市에 있는 나눔정원 현황】

(www.paris.fr/loisirs/jardinage-vegetation/jardins-partages/vie-d-un-jardin-partage-reportage-au-jardin-de-l-aqueduc/rub_9111_stand_65339_port_22123)

(www.paris.fr/loisirs/jardinage-vegetation/jardins-partages/comment-creer-un-jardin-partage/rub_9111_stand_10187_port_22123)

외국인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쓰레기통에 ‘픽토그램’ 부착 (일본 교토市)

- 일본 교토市는 쓰레기 분리수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쓰레기통에 ‘픽토그램’(Pictogram)을 부착함. 픽토그램이란 그림으로 된 문자로 언어를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도시에서 유용하게 쓰임.
- 市는 모든 쓰레기통(총 595개)에 일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의 4개 국어가 적힌 픽토그램을 붙임. 이를 통해 일본어를 모르는 외국인들도 쓰레기통 겉면에 표시되어 있는 그림문자를 통해 쉽게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가연성 쓰레기통의 픽토그램】



【재활용 쓰레기통의 픽토그램】



【픽토그램을 붙인 쓰레기통】

(www.city.kyoto.lg.jp/kankyo/page/0000110319.html)

도 시 교 통

도로환경에 맞는 새로운 맞춤형 친환경버스 도입 (런던)

- 런던시는 2011년 11월 런던의 도로환경에 맞는 새로운 맞춤형 버스를 시험 운행함. 이 버스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런던의 도로지형과 가로구조에 적합하도록 북아일랜드 벨리미나에 위치한 라이트버스(Wrightbus) 공장에서 특별 제작되었음. 또한 2012년 초에 같은 회사에서 특별 제작된 7개 디자인의 친환경 버스가 추가 도입될 예정임.
- 이 버스는 첨단 하이브리드기술을 적용해 최상의 친환경버스가 될 전망이다. 최근 시험운행 결과에 따르면 km당 640그램의 이산화탄소, 3.96그램의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해 디젤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남. 기존 디젤자동차는 km당 1295그램의 이산화탄소와 9.3그램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함.
- 시는 기존의 2층 버스도 혁신적으로 개선함. 새로운 2층 버스는 3개의 출입문과 2개의 내부계단이 있음. 버스의 뒷부분 일부는 과거 영국 전통버스의 한 형태였던 루트마스터처럼 개방함.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mayor-drives-first-new-bus-london-production-line)

도시계획 · 주택

6. 도심의 공공용지를 활용해 저렴한 서민주택 건설 (런던)

○ 런던市는 도심에 있는 공공용지(公共用地)를 적극 활용해 2012년 봄까지 5만 세대의 도심형 서민주택을 공급할 계획임. 市는 우선 영국 주택커뮤니티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공용지에 3500세대의 서민주택을 짓기로 최근 결정함. 이러한 도심 내 주택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市는 이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주택협회, 개발업자와 협력해 주택을 지을 계획임. 市는 주택 조성과 함께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커뮤니티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주택부지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공부지는 65세대 주택을 건설하게 되는 소호 지역, 1600세대의 주택을 짓는 런던 동부의 블랙월리치, 645세대의 주택을 조성하는 그리니치 동부 도심지역, 옛 병원부지에 450세대의 주택을 조성하는 세인트 클레멘트와 퀸 엘리자베스 지역 등임.

- 市는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난으로 서민주택 공급이 다소 위축받을 수 있지만 공공용지를 적극 활용해 더욱 저렴한 서민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이러한 주택조성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mayor-accelerates-delivery-public-land-provide-more-homes)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는 도시계획 안내서 발간 (베를린)

- 베를린市는 도시계획가와 수도 발전에 관심이 있는 일반시민을 위해 여성친화적인 도시계획 안내서를 발간함. 이 책은 무엇이 성 평등적인 도시계획인지, 도시계획과정에서 여성성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음. 또한 도시계획과 도시발전정책에 다양한 시민의 욕구가 두루 반영되어야 하고, 여성의 관점을 수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도시생활 환경의 질을 제고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음.
- 안내서는 도시계획 과정에서 성 평등을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지를 도시계획, 주택 건설, 상가계획, 근린생활시설 공급, 교통, 휴식공간, 환경 등 7개 분야로 나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특히 여성 건축가와 도시계획가의 실제 경험과 성과를 수록함.
- 이와 관련해 市는 2002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데 힘쓰고 있음. 市 도시발전국은 여성 건축가·도시계획가·사회경제학자로 구성된 여성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도시계획 및 도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얻고 있음.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1109/nachricht4496.html)

(www.stadtentwicklung.berlin.de/soziale_stadt/gender_mainstreaming/index.shtml)